

## 절대선: 파운드의 시 “지옥편”과 단테의 『신곡』 “지옥편”

고 준 석

---

**우리말 요약:** 파운드와 단테는 시, 지옥편을 상징적 매체로 사용하여 인간 세상에서 절대선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파운드는 런던의 현대사회를 지옥으로 묘사하여 현대 문명의 타락과 현대인들의 비도덕적 삶을 질타한다. 반면에 단테는 성경에 토대를 두고 지옥을 설정하여 사후세계의 지옥을 설명한다. 파운드는 플로티노스의 안내로 지옥 여정을 시작하고 끝내지만,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다양한 지옥을 여행한다. 요컨대 두 시인은 지옥을 인간의 심리적 상태로 묘사하여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절대선을 실천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야할 여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에즈라 파운드,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지옥시편, 절대선

**저자:** 고준석은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이다.

---

**Title: The Absolute Good: Ezra Pound's “Hell Cantos” and Dante Alighieri's “Inferno” in the *Divine Comedy***

**Abstract:** Ezra Pound and Dante Alighieri are poets who emphasize the pursuit of the Absolute Good by using symbols such as a hell. Pound depicts London as the modern hell and denounces both the corruption of modern civilization and the immoral life of our contemporaries; On the other hand, Dante makes a hell based on the Holy Bible, explaining the hell of afterlife. Pound starts and finishes the journey of a hell with a guidance of Plotinus, but Dante goes on a trip to a variety of hells with a guidance of Virgil. Therefore, a hell being a state of mind of human beings, two poets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contemporaries to practice the Absolute Good to escape from the hell.

**Key words:** Ezra Pound, Dante Alighieri, *Divine Comedy*, Hell Canto, Absolute Good

**Author:** Joon Seog Ko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61452, Korea.

E-mail: 1204kjs@chosun.ac.kr

---

똥으로 달콤해진 피를 마시는 고리대금업자들,  
그리고 그들의 뒤에. . . . .고 과 강철 줄들로  
그들을 채찍질하는 금융업자들 (*Canto XIV*)

Profiteers drinking blood sweetened with sh-t,  
And behind them. . . . . f and the financiers  
lashing them with steel wires.

## I

단테(Dante Alighieri)는 『신곡』(*The Divine Comedy*)에서 많은 역사적 인물들, 그리스 신화, 우화 등을 사용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실재(reality)를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에 제시하고 있다. 『신곡』의 “지옥편”은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현세에서 인간의 삶의 개성과 통합시킴으로써 비극적 죽음을 초월”(Bloom 1)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옥편”의 등장인물들은 지옥의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과거의 삶을 적나라하게 제시한다. 이는 단테가 어떤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지옥편”에 등장인물의 행위에 성격과 운명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신곡』의 시스템은 “지옥편”의 처음 2편의 시편인, “시편 I”과 “시편 II”에 제시된다. 단테의 우주에서 “빛과 정반대는 어둠이 아니라 육체이다”(Bloom 71). 이처럼, 인간의 육체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지옥, 연옥,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여는 방편이다.

단테의 『신곡』은 “인간이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들이 거주하였던 계를 지나가는 여정에 대한 단테의 환상”이며, “인간이 죽기 전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 단테의 지성의 여정”(SR 127)이라고 파운드(Ezra Pound)는 설명한다.

단테는 『신곡』의 “지옥편”에서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는 “지옥편”의 제1곡에서 “우리 인생길의 한 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 버렸기에” “죽음 못지않게 쓰라린 일이지만, 거기에서 찾은 선을 이야기”(김운찬 7)하기 위해서 이 “지옥

편"을 설명한다고 "지옥편"을 쓴 이유를 말한다. 지옥의 안내자가 된 베르길리우스는 그에게 지옥)을 "절망적인 절규"와 "두 번째 죽음을 애원하는 고통스런 옛 영혼들"(14)이 거주하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라고 말한다.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음란함, 애욕, 탐식, 재물의 낭비, 인색함, 분노하는 삶, 불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음, 기만, 폭력, 아침, 남색, 고리대금업자, 투쟁이, 유혹자, 아침꾼, 성직이나 신성한 물건을 거래한 사람, 점쟁이와 예언자,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사기와 기만을 교사한 사람, 종교와 정치에서 불화의 씨앗을 뿌린 자, 화폐를 위조한 자, 다른 영혼을 괴롭히는 자, 거대한 거인, 가족, 친척, 동료, 그리고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 그리고 은혜를 배신한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은 자신들이 현생에서 지은 죄에 대한 응보를 받고 있다.

또한 파운드는 미국에서 런던으로 이주하여 런던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지즘 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대문명의 심각한 타락상을 목격한다. 그는 "시편 14"와 "시편 15"에서 병들과 부패한 런던이나, 더 크게는 문명화된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지옥이라고 단정한다. 그래서 "지옥은 열정에 의해서 지배된 사람의 상태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성의 선을 상실하고 있다"(SR 129). 그는 이 지옥을 똥구멍, 고름, 구더기, 똥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한다. 그는 루이스(Wyndham Lewis)에게 "지옥 시편들"(Hell Cantos)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은 지옥이 현대의 영국에 대한 상세한 묘사이며, 혹은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 그 당시로써 최소한 영국에 대한 상세한 묘사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L 191). 그는 드럼몬드(John Drummond)에게 "지옥시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옥시편들은 특히 런던이며, 1919년과 1920년에 영국인의 마음의 상태이다" (L 239). 그리고 1925년 5월 25일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1919년과 그 다음 해에 영국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편 14"와 "시편 15"를 의도했습니다. 월슨씨를 포함하여. 그 시편들은 하딩 쿨리지(Harding-Coolidge) 시대 이전에 창작되었으며, 저는 한 행, 혹은 두 행을 전자의 몽롱함과 후자의 위선적인 말투에 바쳐야 했습니다"(Terrell 65). 그 이유는 그가 1909년 5월 21일에 윌리엄스(William Carlos Williams)에게 보낸 편지에서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느낀 그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시인이 최고의 예술을 제외하고

모든 예술의 허영을 느끼도록 만드는 런던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가장 세심하게 전통적으로 재현한 것 이외에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곳입니다”(L 8). 파운드의 지옥은 단테의 지옥과 비교됨으로써 지옥 자체의 인과응보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의 지옥은 “불충분한 신학, 반복적인 이미지, 어조의 강렬함으로 영국의 권력에 대항하여 불쾌함을 드러냄으로써 진기한 가치”(Alexander 157)를 지닌다.

이에 이 연구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과 파운드의 “지옥시편들”인 “시편 14편과 시편 15편”에 제시된 지옥의 이미지를 통해서 두 시인들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으며, 그 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의 존재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선이 과연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II

단테는 『신곡』에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한 이후에 이성과 덕성으로 지상낙원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의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단테의 “지옥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분석해 볼 것이다. 『신곡』의 “지옥편”은 단테가 인생길의 한 중간에서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후에 음란, 교만, 탐욕을 상징하는 표범, 사자, 암늑대를 만난다. 그때에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지옥으로 여정을 시작한다. 지옥은 예루살렘의 지하에서 수직으로 지구 중심까지 내려가면 그곳에 지옥이 존재한다. 지옥은 크게 9개의 원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원들이 중첩되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이 좁아지는 구조를 갖는다. 일부 원들은 다시 여러 개의 둘레로 나뉜다. 제7원은 3개의 둘레, 제8원은 10개 둘레, 제9원은 4개 둘레로 나뉜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 지옥입구에 도착한다. 지옥의 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글귀가 쓰여 있다.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에 들어가노라.  
정의는 높으신 내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들뿐,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두 희망을 버릴지이다. (김운찬 24)

지옥의 문을 넘어서면 “고통의 도시”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면서 현세에서의 삶을 후회하고 참회해야 한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이 지옥문을 지나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의 첫 번째 원이 림보이다. 이 원은 그리스도 탄생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같이 덕성을 갖추었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옥이다. 그들은 육체적 형벌이 아닌 천국에 올라갈 수 없음을 알고 고통스러워한다. 다음 원은 음란함과 애욕의 죄인들이 벌 받는 지옥이며, 그 다음 원은 탐식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벌 받는 지옥이다. 그리고 다음 원은 낭비와 인색함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벌 받는 지옥이며, 그 다음 원은 고통스런 영혼들과 악마들이 벌 받는 지옥이다. 또 다른 원은 영혼의 불멸을 부정했던 영혼들이 벌 받는 지옥이다.

한 원은 신성이나 자신의 육체에 폭력을 가한 폭력자들과 남색의 죄인들이 벌 받는 지옥이다. 특히 고리대금업자들은 이 원의 셋째 둘레에 거주한다.

그들 눈에서는 고통의 눈물이 솟아났고, 이쪽저쪽으로 손들을 휘두르면서 뜨거운 모래와 수증기를 피하려고 했다. (김운찬 134)

또 다른 원은 위선, 아침, 도둑질, 매춘, 사기 등으로 영혼들이 벌 받는 지옥이다. 이 원에서 첫째 둘레에는 투쟁이와 유혹자들이 악마들에게 채찍을 맞고 있으며, 둘째 둘레에는 아침꾼들이 더러운 똥물 속에 잠겨 있으며, 셋째 둘레에는 돈을 받고 성직이나 신성한 물건을 거래한 죄인들이 있으며, 넷째 둘레에는 점

쟁이와 예언자(테이레시아스, 암피아라오스, 아론타 등)들이 벌 받고 있다. 다섯째 둘레에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탐관오리들이 벌을 받고 있으며, 여섯째 둘레에는 위선자들이 벌을 받고 있으며, 일곱째 둘레에는 엄청나게 많은 뱀들이 도둑의 영혼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여덟째 둘레에는 사기와 기만을 교사한 죄인들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둘레에는 온갖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화폐를 위조한 자들이 역겹고 악취 나는 질병에 시달리는 벌을 받고 있다(김운찬 140-208). 마지막 원은 가족과 친척, 조국과 동료들을 배신한 영혼들이 벌을 받고 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원부터 마지막 원까지 지옥의 모든 세계를 탐험한 후에 “루키페르의 몸에 매달려 지구의 중심을 지나고, 좁은 동굴을 통해 남반구를 향해 기어올라”(김운찬 280) 연옥의 입구에 도착한다.

요컨대, 단테의 이러한 지옥여행은 현세에서 절대선인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집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현세의 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를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대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등대 불을 비춰주고 있다. 이제는 단테의 지옥과 상당히 다른 파운드의 지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III

파운드는 1921년에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서 4년 동안 산 이 후에, 1924년에 이탈리아 제노바(Genoa)에서 17마일정도 떨어진 조그만 해변도시 라팔로(Rapallo)에 정착한다. 그는 라팔로에서 1915년경부터 창작하기 시작한 시편들을 모아서 『16개 시편들의 초고』(*A Draft of XVI Cantos*)를 출간한다. 「시편 I-II」와 「시편 V-VI」은 오디세우스의 방랑을, 「시편 III」은 베니스에서 삶을, 「시편 IV」는 트로이의 헬렌을, 「시편 VIII-XI」은 리미니(Rimini)의 영주 시지스문도 말라테스타(Malatesta)의 생애를, 「시편 XIII」은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와



납작한 궁둥이 위에 확장된 눈,  
 턱수염 위의 덩수룩한 털,  
 그들의 향문으로 군중에게 말하고,  
 분비물 속에 있는 대중에게 말하고,  
 멍청이들, 물-민달팽이들, 물-구더기들, (*Cantos* 61)

Io venni in luogo d'ogni luce muto;  
 The stench of wet coal, politicians  
 . . . . . e and. . . . n, their wrists bound to  
 their ankles,  
 Standing bare bum,  
 Faces smeared on their rumps,  
 wide eye on flat buttock,  
 Bush hanging for beard,  
 Addressing crowds through their arse-holes,  
 Addressing the multitudes in the ooze,  
 newts, water-slugs, water-maggots,

이 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손목이 발목에 묶인 채 알몸으로, 궁둥이 위에 “더러워진 얼굴들”과 “확장된 눈”이 있다. 궁둥이 위의 “더러워진 얼굴들”은 런던의 정치가, 금융업자와 무기상, 고리대금업자가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여, 금융적으로 수탈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궁둥이 위의 “확장된 눈”도 또한 시민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상징적 실제인물들로 “...e and ...n”을 사용한다. 이 시에서 “...e and ...n”은 1916부터 1922년까지 영국의 수상이었던 조지(Lloyd George) 수상과 1913년부터 1921까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이다(Terrell 65). 지옥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향문으로 군중에게 말하고/ 분비물 속에 있는 대중에게 말하는” “멍청이들, 물-민달팽이들, 물-구더기들”과 같은 존재이다. 현대문명이라는 지옥은 입이 아닌 똥구멍으로 대중들에게 말하는 멍청이들과 구더기와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장소이다.

파운드르는 지옥에 거주하는 정치가 이외의 사람들로 고리대금업자들, 무기를 판매하는 금융업자들, 언어를 왜곡하는 사람들, 변태성욕자를 제시한다. 고리대

금융자들은 예술적 차별이나 지성적 식별, 명예, 용기, 예의도 없이 “똥으로 달콤해진 피를 마시면서”(Cantos 61)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한다. 금융업자들은 오물더미에 지체를 숨기고 “강철 줄”로 만든 채찍으로 시민들을 “채찍질하면서”(61)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 있다. 언어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악의를 가지고 언어를 왜곡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미지즘을 주장했던 그는 이러한 언어의 왜곡을 도덕적 오물과 지성적 오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도덕적 오물은 그것이 활자로 인쇄되었을 때에 아마도 지성적 오물보다 독성이 더 약하다. 인쇄된 도덕적 오물은 독자에게 해독을 끼치게 되지만, 지성적 오물은 모든 인종에게 독이 될 수 있다”(Terrell 66). 변태성욕자들은 “감각들의 즐거움 이전에 돈 욕망이 일어난” 사람들이다.

파운드스는 인쇄소에서 직공들이 인쇄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현대 문명의 발달의 폐해를 지옥으로 묘사한다. 그는 인쇄소 이미지로 현대 물질문명의 단점을 제시한다.

울부짖는, 인쇄소에서 암탉의 뜰처럼,  
인쇄기들의 덜컹덜컹컹 하는 소리,  
지독한 악취, 땀, 상한 오렌지들의 악취,  
똥, 우주의 마지막 시궁창,  
신비의식, 황산,  
무기력한 사람, 격노한,  
보석들을 진흙에 던지는 것,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자신들을 찾기 위해 울부짖기;  
노쇠한 침대로 딸들을 데려가는 학대음란증의 엄마들,  
새끼들을 먹는 암돼지,  
그리고 여기서 플래카드의 지상의 그림,  
여기서. 인사이동, (Cantos 61-62)

howling, as of a hen-yard in a printing-house,  
the clatter of presses,  
foetor, sweat, the stench of stale oranges,  
dung, last cess-pool of the universe,  
mysterium, acid of sulphur,  
the pusillanimous, raging;

plunging jewels in mud,  
                   and howling to find them unstained;  
 sadic mothers driving their daughters to bed with decrepitude,  
 sows eating their litters,  
 and here the placard ΕΙΚΩΝ ΓΗΣ,  
                   and here: THE PERSONNEL CHANGES,

“인쇄기들의 덜커덕덜커덕 하는 소리”는 현대 문명이 기계화되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현 사회는 “지독한 악취, 땀, 상한 오렌지들의 악취, 똥” 냄새를 풍겨서 “우주의 마지막 시궁창”이 되어가고 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죽어서 내세에 갈 수 있다는 내세의 지옥이 아닌 현세의 물질문명의 한 장면을 지옥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렇듯 현세에서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석을 진흙”에 던지거나, 순박한 “자신들을 찾기 위해 울부짖기”를 하거나, “학대음란증”에 걸려서 연금술과 같은 “신비의식”에 빠져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납으로 황금을 만드는 데에 “황산”을 사용하여 정신적 만족을 상실하고 물질적 부와 같은 황금을 얻는 데 탐닉하고 있다.

파운드는 현대문명의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집단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지를 묘사한다. 그들은 피어스와 맥도나의 살인범들, 캡틴 H, 베르레스, 캘빈, 클레멘트 등이다.

피어스와 맥도나의 살인범들,  
                   최고 고문자, H 대위,  
 곤드레만드레로 취한 똥 같은 놈, 베르레스,  
                   고집통이들, 캘빈과 성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검은 딱정벌레들, 똥 속에 굴을 파기,  
 오물의 노쇠, 조각들로 가득 찬 분비물  
 이미 보이지 않은 윤곽들, 부식들.

The murderers of Pearse and MacDonagh,  
                   Captain H. the chief torturer;  
 The petrified turd that was Verres,  
                   bigots, Calvin and St. Clement of Alexandria!  
 black-beetles, burrowing into the sh-t,

The soil a decrepitude, the ooze full of morsels,  
lost contours, erosions. (*Cantos* 62)

피어스와 맥도나는 아일랜드에서 1916년에 부활절 민중봉기가 발생하였을 때에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영국군에 의해 총살당한 영웅들이다. “피어스와 맥도나의 살인범들”은 영국군 군인들이다. “최고 고문자, H 대위”는 영국군 장교였던 콜허스트(J. Bowen-Collhurst)이며, 아일랜드에서 많은 정치범 죄수들을 고문으로 죽였기 때문에 아실럼(Asylum) 교도소에 감금되었다. “곤드레 만드레로 취한 똥 같은 놈인 베르레스”는 로마 행정관으로써 정의를 팔아 대교구를 약탈하고, 권력을 팔아 박해를 피하고, 예술품을 팔아먹은 부패한 관리이다(Terrel 66). 켈빈은 파운드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신비를 파괴하여 축하와 즐거움을 공포와 참회로 대체한 종교지도자이다(66). “성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 신학자이다. 그는 사도 바울의 삶을 그린 신약 성경과 도덕법 등을 거부했다.

그리고 파운드는 현세의 지옥이 어떤 장소인지를 묘사한다. 그 지옥은 “지옥의 부패물 위에 있는 커다란 항문구멍”이며, “많은 영국인들”(Cantos 62)이 사는 곳이며, “공중에서 똥을 떨어뜨리는 하르피아아이”(63)가 있는 곳이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하르피아아이는 트라키아의 왕 피네우스가 음식을 먹려고 하면 순식간에 날아와서 음식을 빼앗거나 배설물로 음식을 더럽혀서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악탈을 일삼는 새 형상을 한 괴물이다. 지옥은 고름, 해충, 구더기들이 가득 찬 곳이다. 또한 그곳은 “고리대금업자들, 권력의 투쟁자들, 대학의 학자들”(63)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질투,  
타락, 지독한 악취, 균류,  
액체 형태의 동물들, 녹은 골화들,  
느린 부패, 악취를 내뿜는 연소,  
    씹는 담배꽂초, 존엄이 없음, 비극이 없음  
. . . . . □ 주교, 검은 딱정벌레로 가득 찬 콘돔을 흔들기,  
독점자들, 지식의 방해자들,  
    분배의 방해자들. (*Cantos* 63)

And Invidia,  
 the corruptio, foetor, fungus,  
 liquid animals, melted ossifications,  
 slow rot, foetid combustion,  
     chewed cigar-butts, without dignity, without tragedy,  
 . . . . m Episcopus, waving a condom full of black-beetles, “Bishop.”  
 monopolists, obstructors of knowledge,  
     obstructors of distribution.

지옥은 “질투”, “악취”, “존엄이 없음”, “비극이 없음”이 존재하여 “독점자들, 지식의 방해자들, 분배의 방해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이다. 이제 「시편 XV」에서는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여행하는 것처럼 파운드스가 플로티노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탐험하는 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운드스는 「시편 XV」를 4부로 구성한다. 첫 번째 부에서는 처칠 수상(Winston Churchill)과 수석대주교를 등장인물로 사용한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옥은 “똥구멍”의 세계이며, “똥 더미들”이 쌓여 있는 장소이다.

커다란 꺼칠꺼칠한 똥구멍, 똥 더미들,  
     제국주의로 덜거덕 소리를 내는,  
 최후의 소변기, 두엄 더미, 변소 없이 오줌 싸고 똥굴기,  
 . . . . . r 더 적은 난장판 치는 사람, . . . . . 수석 대주교  
     . . . . . 시스  
     고개를 숙이고, 구정물로 얼굴을 찡그리고,  
 흔들리고 부스럼투성이의 그의 다리들,  
     배꼽 위에 매달린 성직자의 국부보호대  
 검은 딱정벌레들로 가득 찬 그의 콘돔, (*Cantos* 64)

the great scabrous arse-hole, sh-tting flies,  
     rumbling with imperialism,  
 ultimate urinal, middan, pissswallow without a cloaca,  
 . . . . . r less rowdy, . . . . . episcopus  
     . . . . . sis,  
     head down, screwed into the swill,  
 his legs waving and pustular,

a clerical jock strap hanging back over the navel  
his condom full of black beetles,

위의 시에서 “. . sis”은 처질(Winston Churchill)(Terrell 66) 수상이다. 정치인들과 “수석대주교”는 똥 더미들이 쌓인 곳에 살면서 “검은 딱정벌레들로 가득 찬” “콘돔”을 끼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다. 윤리를 지키며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항문 둘레에 문신 흔적들”(Cantos 64)을 남기며 무수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다. 파운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도덕과 종교의 가치가 무너진 현실의 삶이 지옥과 똑같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부에서 파운드는 자신의 육체에 자해를 가하는 사람들, “백 개의 다리들을 가진 짐승, 우수라”, “차별대우하는 사람들”, “지난날의 찬미자들”, “페이비언”, “아침꾼들”,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포 포탄 같이 총상으로 그의 머리가 부서진”(Cantos 64-5)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옥을 묘사한다.

세 번째 부에서, 단테가 지옥 여행의 안내자로 베르길리우스를 사용하듯이, 파운드는 플로티노스와 대화를 통해서 지옥의 여정의 안내자로 사용하여 지옥의 체험을 구체화한다. 안내자, 플로티노스는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이며, 절대선인 하느님과의 합일을 통해서만 엘리시움(Elysium)이라는 이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릴에 따르면, 플로티노스는 “동시대의 지옥의 어둠으로부터 파운드를 밖으로 이끌어 내는” 안내자이다. “지옥은 마음의 상태”(Terrell 67)이기 때문이다. 파운드는 악취가 풍기는 지옥에서 “어떻게 되었는가?”(Cantos 65)라고 그의 안내자, 플로티노스에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안내자가 대답한다.

이 부류는 분할로 기른다,  
이것은 사백만 번째의 종기이다.  
이 시궁창에 따분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무한한 고름 조각들, 영원한 천연두 딱지들.

This sort breeds by scission,  
This is the fourmillionth tumour.  
In this bolge bores are gathered,  
Infinite pus flakes, scabs of a lasting pox. (Cantos 65)

플로티노스는 그에게 지옥이 여러 종류로 분할되어 있으며, “사백만 번째의 종기”처럼 분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옥의 “시궁창”에는 다양한 “따분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은 “무한한 고름 조각들”과 “영원한 천연두 딱지들”로 상징적으로 설명된다.

네 번째 부에서 파운드는 플로티노스와 함께 지옥의 여정을 계속한 후에 지옥의 여정을 끝내고 단테처럼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옥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갑시다!

사람의 발이 가라앉았고,  
진흙의 구덩이는 사람을 꼭 쥐었고, 난간이 없었고,  
소택지는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였고,  
그리고 그가 말하길,  
그대 발의 털구멍을 닫아라!

Andiamo!

One's feet sunk,  
the welsh of mud gripped one, no hand-rail,  
the bog suck like a whirl-pool,  
and he said:  
Close the pores of your feet! (*Cantos* 66)

그는 플로티노스를 따라 지옥을 지나간다. 이 지옥에서 “진흙의 구덩이”와 “소택지는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발의 털구멍을 닫고” 이 지역을 지나간다. 아래에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메두사”이다. 그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벗어난다.

망각,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잠자고, 메스꺼움으로 졸도한다.

Oblivion,

forget how long,

sleep, fainting nausea. (*Cantos* 66)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처럼, 플로티노스도 파운드를 떠난다. 파운드는 그의 지옥 여정을 “꿈속”으로 묘사하여 지옥에서 현재로 되돌아온 상태를 제시한다.

“니사푸르에서든지 바빌론에서든지”  
나는 꿈속에서 들었다.

.....  
“태양” “태양”

햇빛으로 눈이 먼,  
부어오른 눈, 휴식하는,  
가라앉고 있는 눈꺼풀, 암흑의 무의식.

“Whether in Naishapur or Babylon”  
I heard in the dream.

.....  
“HeAiov” “HeAiov”

blind with the sunlight,  
Swollen-eyed, rested,  
lids sinking, darkness unconscious. (*Cantos* 67)

이제, 파운드는 꿈속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와 “태양”을 보고 눈부셔한다. 그러나 아직 잠이 덜 깬 것처럼 눈꺼풀이 가라앉아 있다. “태양”과 “암흑의 무의식”은 그가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암흑의 세계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빛과 의식의 세계로 돌아온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 IV

파운드와 단테는 지옥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절대선을 인간들의 현실적 삶에서 추구하고 있다. 두 시인은 서로 다른 시대, 역사, 환경에서 살았고, 비록 사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한 목적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시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운드의 “지옥편”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단테의 “지옥편”은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둘째, 파운드의 시들에서 지옥으로 여정 안내자는 플로티노스이지만, 단테의 서사시에서 안내자는 베르길리우스이다.

셋째, 파운드는 절대선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플로티노스의 일자(신, 절대선)와의 합일을 상징적으로 제시하여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였고, 단테는 절대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이나 세례를 받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임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파운드는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자신의 사상적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지만, 단테는 구어체적인 묘사에서 자신의 사상을 전달한다.

다섯째, 파운드의 지옥은 현재 이 순간의 마음상태에서 일어난 마음의 상태이지만, 단테의 지옥은 현재 이순간의 마음상태와 인간이 죽어서 사후에 전제될 현상의 상태를 둘 다 반영한다.

요컨대, 파운드와 단테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행복, 절대선이 무엇 인지를 독자들에게 깊이 통찰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천국과 지옥과 세계는 현재적 순간의 마음먹기에 의해서 결정됨을 중요한 교훈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Notes

1) 불교에서 지옥은 인간이 윤회하는 육도(천(天), 인간(人間), 아수라(阿修羅), 축생(畜生), 아귀(餓鬼), 지옥(地獄)) 세계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구사론(俱舍論)에서는 지옥의 종류를 팔대지옥으로 구분한다.

(1) 등활지옥(等活地獄)은 살생의 죄, 죄인들이 서로 죽이고 뜨거운 고통을 받는 곳이다.

(2) 흑승지옥(黑繩地獄)은 살생, 도둑질의 죄를 벌 받는 곳이다.

(3) 중합지옥(衆合地獄)은 사음(邪淫)의 죄를 말한다. 마음이 음탕하고 사악함. 불교에서는 5악의 하나. 남의 남자와 여자를 탐하여 욕사행(欲邪行: 음탕한 짓)을 저지른 자의 벌 받는 곳이다.

(4) 규환지옥(叫喚地獄)은 살생, 도둑질, 사음, 음주의 죄를 지은 자들이 벌 받는 곳이다.

(5) 대규환지옥(大叫喚地獄)은 위의 4가지 죄에 맹어죄(妄語罪 - 눈이 멀고 말을 못함)가 더해진 지옥이다.

- (6) 초열지옥(焦熱地獄)은 위의 5가지 죄와 사견(邪見)의 죄가 더해진 자들이 벌 받는 곳이다.  
(7) 대초열지옥(大焦熱地獄)은 위의 6가지의 니승(尼(신중니) 僧)을 범한 죄인들이 벌 받는 곳이다.  
(8) 아비/무간지옥(阿鼻/無間地獄)은 부모를 죽이거나 부처를 손상시킨 죄와 불법비난(佛法非難)의 죄를 짓은 자들이 벌 받는 곳이다.
- 2) Pound, Ezra. *The Cantos of Ezra Pound*. New York: A New Directions Book, 1996. 이 시집은 *Cantos*로 약칭한다.

## Works cited

- Alexander, Michael. *The Poetic Achievement of Ezra Pound*. LA: U of California Press, 1981.
- Bloom, Harold(ed). *Modern Critical Views Dant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 Dante, Alighieri. *La Divina Commedia: Inferno*. Trans. Kim, Un Chan. Paju: Openbooks, 2018.
-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지옥”. 김운찬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8.
- Dujin Lee. *The Poetry and Confucian ideas of Ezra Pound*. Seoul: L. I. E., 2010.]
- [이두진. 『에즈라 파운드의 시와 유교사상』. 서울: L. I. E., 2010.]
- Havely, Nick. *Dante*. MA: Blackwell, 2007.
- Il-Hwan Lee(Trans.), *The Cantos*. Seoul: Munhak and Jisungsa, 1990.]
- [이일환(역). 『칸토스』.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 Kayman, Martin A.. *The Modernism of Ezra Pound*. London: Macmillan, 1986.
- Pound, Ezra. *The Cantos of Ezra Pound*. New York: A New Directions Book, 1996.
- \_\_\_\_\_. *Imagism: Essays on Its Initiation, Impact and Influence*. ed Gery, John & Daniel Kepton & H. R. Stoneback. New Orleans: Uno Press, 2013.
- \_\_\_\_\_. *The Selected Letters of Ezra Pound, 1907-1941*. ed. D. D. Paige. New York: New Directions Publishing Co., 1971.
- \_\_\_\_\_. *The Spirit of Romance*. London: J. M. Dent & Sons, 1952.

- Stock, Neol. *The Life of Ezra Pou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2011.
- Sutton, Walter. *Ezra Poun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 J.: Prentice-Hall, 1963.
- Terrell, Carroll F.. *A Companion to the Cantos of Ezra Pound*. LA: U of California P, 1980.

**Manuscript peer-review process:**

receipt acknowledged: Jul. 10, 2019.

peer-reviewed: Jul. 15, 2019.

revision received: Aug. 10, 2019.

publication approved: Aug. 26, 2019.